https://doi.org/10.4047/jkap.2016.54.4.364

총의치 사용에 대한 환자와 술자간 평가 비교

변진수[1] · 허윤혁[2] · 조리라[2] · 박찬진[2]*

[1]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치과보철과,

[2]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Comparison between denture wearer's evaluation and clinician's rating for complete denture

Jin-Soo Byun[1], Yoon-Hyuk Huh[2], Lee-La Cho[2], Chan-Jin Park[2]*

[1]*Department of Prosthodontics, Wonkwang University Sanbon Dental Hospital, Gunpo, Republic of Korea*

[2]*Department of Prosthodontics and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enture wearer's evaluation and clinician's technical rating for complete denture used on edentulous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Total 43 edentulous patients who had complete denture fabricated more than one year ago were recalled.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various literatures was modified and applied to patients for subjective assessments. Functional aspects related to retention, stability, occlusion and denture condition were included in operator's evaluation. In addition, correlations were evaluated between patient's subjective and operator's objective assessments. Friedman test and Cohen's Kappa value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denture wearers' evaluations were slightly or fairly agree to clinician's rating for complete denture. More differences were found in maxillary denture than mandibular denture and moderate difference was found in esthetic, occlusion aspects. **Conclusion:** There were slightly or fairly agreement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6;54:364-9)*

Keywords: Complete denture; Patient evaluation; Clinician's rating; Cohen's Kappa value

서론

총의치를 사용하는 환자의 대다수는 노인으로서, 이들은 의치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여 구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구강 내적으로 발음, 저작, 미각 등의 요인을 비롯하여 구강 외적으로는 안모, 심미, 정신적인 면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무치악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술자의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용인이 되는 의치가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1,2] 하지만 이와 달리 술자의 능력 또는 기타 여러 원인에 의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치에 대해서 환자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는 문헌도 다수 존재한다.[3-5] 이는 총의치를 장착한 환자가 의치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의치를 제작한 술자의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고 환자가 가진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의 문헌에서는 상악 총의치에 대해서는 환자와 술자의 평가가 유사하지만 하악 총의치에 대해서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였다.[6,7] 하지만 환자와 술자의 평가 간에 관련성을 찾지 못한 문헌도 있으며[8,9] 술자가 기대했던 것 보다 환자의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나타내는 문헌도 존재한다.[10] 이들 외에 여러 문헌에서 밝혔듯이 환자와 술자의 평가는 항상 같거나 다르지 않고 문헌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문헌에서 환자의 평가와 술자의 평가 간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

*Corresponding Author: Chan-Jin Park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and Research Institute of Oral Science,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Jukheongil 7, Gangneung, 25457, Republic of Korea

+82 (0)33 640 3153: e-mail, doctorcj@gwnu.ac.kr

Article history: Received March 16, 2016 / Last Revision April 19, 2016 / Accepted June 7, 2016

ⓒ 2016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0301-2875, eISSN 2005-3789

운 것으로 여겨진다.[11-13] 이들 문헌을 포함하여 여러 문헌에서 조사된 항목들은 의치의 유지력, 안정성, 적합도, 편안함 등의 기능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고 이들 평가는 환자가 직접 설문지에 답을 하여 판단한다.[14-16] 이와 같은 의치에 대한 환자의 평가 사항은 술자의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련성을 위에 언급한 여러 문헌에서 밝혀졌다.

의치사용 만족도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국외의 연구로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을 취합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토대로 환자의 의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알아보고 술자의 의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의치에 대한 환자와 술자 간의 평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199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치과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와 잔존치근이 없는 무치악 환경에서 상,하악 총의치를 동시에 제작 및 장착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 IRB 2013-11).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총의치를 장착한 후 최소 1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정기검진에 참여하는 환자로 기존의 의무기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275명이었다. 이 중 연구 기간 내에 내원이 가능한 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연령은 평균 74.7세이고 남성은 19명, 여성은 24명이었다.

2. 방법

1) 환자의 주관적 평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직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었고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평가자가 쉽게 설명하여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사항은 현재 사용하는 상,하악 총의치의 유지력, 적합도, 편안함, 통증유무, 교합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과 의치의 심미적인 면 중 인공치 배열과 관련된 사항과 의치상의 색상과 형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였다. 환자의 평가는 1회 시행하였으며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를 5점, '그렇다' 를 4점, '보통이다' 를 3점, '그렇지 않다' 를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를 1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2) 평가자의 객관적 평가

한 명의 숙련된 술자가 환자의 총의치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평가하였다. 첫 10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2주 후 재내원시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0.6 이상의 Kappa 계수를 얻음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의치의 기능적인 측면 중 상, 하악 의치의 유지력과 안정성을 비롯하여 교합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며 Woelfel의 방법[17]으로 평가하였다 (Table 1). 총의치 심미는 의치와 안모 간의 조화로움에 대한 술자의 평가, 인공치와 의치상 파절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상, 하악을 나눠 Likert의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Table 1. Woelfel's indices

Item	Test	Class 4	Class 3	Class 2	Class 1
Retruded jaw relation and position of maximum intercuspation	Repeated closure to first contact along the retruded arc of closure	Retruded jaw relation and position of maximum intercuspation coincide	Slight variation (>0.5 mm) between retruded jaw relation and position of maximum intercuspation	Variation (0.5-1.5 mm) between retruded jaw relation and position of maximum intercuspation	Gross error between retruded jaw relation and position of maximum intercuspation
Retention of mandibular complete denture	Downward force applied to posterior area and incisors, final gymnastics	Extremely difficult to break border seal	Moderately difficult to break border seal	Slight resistance before border seal	No border seal
Stability of maxillary denture	Direct horizontal and rotary forces applied in the first molar region	Little movement on the application of strong direct or rotary force	Little movement to rotary force, dislodged by strong direct force to one side	Dislodged by a moderate rotary force or direct force applied to one side	Slight force causes the denture to move or to become dislodged
Retention of mandibular complete denture	With tongue resting, upward force applied between central incisors using probe	Extremely difficult to break border seal	Moderately difficult to break border seal	Slight resistance before border seal breaks	No border seal
Stability of mandibular complete denture	Direct horizontal and rotary forces applied in the first molar region	Little movement on application of strong direct or rotary force	Little movement to rotary force, dislodged by strong direct force to one side	Dislodged by a moderate rotary force or direct force applied to one side	Slight force causes the denture to move or to become dislodged

3) 통계학적 평가

측정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SPSS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환자와 술자 모두 상악과 하악 의치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것으로 여겨져 95% 유의수준에서 Friedman test를 이용하여 차이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환자의 평가와 술자의 평가는 5점 척도, 4점 척도로 다른 수치를 보여 비교평가가 불가능하였기에 '매우 만족, 만족' 은 '만족' 으로, '매우 만족스럽지 않음, 만족스럽지 않음, 보통' 은 '그렇지 않음' 으로 나누어 같은 수치를 얻고 이들 간의 일치성 정도를 평가하는 Cohen's Kappa 값을 구하고 해석하였다.

결과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74.7세로 52-92세로 다양하였으며 이들의 의치 사용기간은 최소 12개월, 최대 178개월로 평균 6.1년이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의치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치 세정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큰 문제를 가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환자는 2명이었으나 술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설문지 작성과 평가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1. 환자의 평가

상악 의치에 대한 환자의 평가는 대부분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하악은 그렇지 않았다. 유지력, 적합도, 편안함 세 가지 항목은 상악 의치와 하악 의치간에 차이가 있었고 모두 상악 의치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2).

2. 술자의 평가

상악 의치의 유지력과 안정성은 모두 하악 의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지력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의치의 교합상태, 안모와의 조화로움으로 평가한 의치의 심미성, 의치의 상태는 양호하였다 (Table 3).

3. 환자와 술자의 평가 비교

상악 의치의 유지력과 안정성 같은 기능적인 측면은 하악 의치에서 보다 환자와 술자 간의 일치도가 더 높았다. 하악 의치에 대한 기능적 측면은 환자가 느끼는 적합도와 술자의 안정성 평가는 대부분 낮았다. 이와 다르게 하악 의치에 대한 평가

Table 2. Patient's evaluation for various aspects of denture qualities

Item		Satisfied			Not satisfied		Mean (SD)
		Very satisfied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Maxillary denture	Retention	30	12		1		4.65 (0.61)
	Fit	27	16				4.63 (0.49)
	Comfort	24	19				4.56 (0.50)
Mandibular denture	Retention	12	13	4	11	3	3.47 (1.33)
	Fit	12	15	4	10	2	3.58 (1.26)
	Comfort	7	13	10	9	4	3.23 (1.23)
Mastication		15	15	6	6	1	3.86 (1.13)
Esthetic appreciation	Artificial teeth	13	19	10	1		4.02 (0.80)
	Denture flange	16	17	10			4.19 (0.77)

Table 3. Examiner's evaluation for various aspects of denture qualities

Item		Good		Not good		Mean (SD)
		Very good	Fairly good	Fairly poor	Very poor	
Maxillary denture	Retention	17	22	4		3.30 (0.64)
	Stability	18	24	1		3.40 (0.54)
Mandibular denture	Retention		10	19	14	1.91 (0.75)
	Stability	13	20	9	1	3.05 (0.79)
Occlusion		22	20	1		3.49 (0.55)
Harmony with face		11	32			3.26 (0.44)
Maxillary denture state		35	6	1	1	3.74 (0.62)
Mandibular denture state		34	9			3.79 (0.41)

Table 4. Agreement between examiner and patients' rating for various aspects of denture qualities using Cohen's Kappa

Denture	Item	Kappa	Level of agreement*
Maxillary	Retention / retention	0.78	4
denture	Fit / stability	0.87	5
	Comfort / stability	0.85	5
Mandibular denture	Retention / retention	0.37	2
	Fit / stability	0.42	3
	Comfort / stability	0.38	2
Both	Mastication / occlusion	0.47	3
Esthetic appreciation	Artificial teeth / harmony with face	0.52	3
	Denture flange / harmony with face	0.54	3
Maxillary denture	Artificial teeth / denture state	0.53	3
	Denture flange / denture state	0.55	3
Mandibular denture	Artificial teeth / denture state	0.53	3
	Denture flange / denture state	0.55	3

* Rating using the method of Cohen's Kappa, 1; 0.81-0.99; Almost perfect agreement, 2; 0.61-0.80; Substantial agreement, 3; 0.41-0.60; Moderate agreement, 2; 0.21-0.40; Fair agreement, 1; 0.01-0.20; Slight agreement, 0; < 0; Less than chance agreement

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 외에 저작, 심미성, 의치의 상태와 관련된 항목은 중등도의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4).

고찰

본 연구는 같은 의치에 대해 직접 사용하는 환자의 주관적 평가와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같은 과정을 통해 의치를 제작하는 술자의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본원에서 제작한 의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정기검진에 참여하는 환자로 술자와의 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특히 상악의치의 경우 유지력, 적합도, 편안함 측면에서 하악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술자가 평가한 수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상악의치가 더 제작하기 쉽고 환자가 편안히 사용하는 기존의 문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10] 같은 시기에 치아를 상실하더라도 상악의 치조골 흡수가 하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형태를 유지하고 넓은 면적을 피개할 수 있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18] 술자 또한 환자가 느끼는 것과 상악의치에 대해서는 유사한 평가를 내렸으나 하악의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려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를 보였다. 이는 환자의 경우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의치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거나[19] 환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치의 한계점에 대해 인정하는 심리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20] 환자가 의치를 사용할 때의 저작에 대한 평가는 의치의 교합과 중등도의 일치도를 보였다. 의치의 교합의 완전함이 환자의 만족도, 교합력 증가, 교합효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에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21,22] 내원한 환자 중 오랜 기간 사용된 의치의 많은 수가 교합면이 마모된 양상을 띄었다. 이들 교합점은 양측으로 균형되게 기록되나 면으로 형성되어 저작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여길 수 있지만 환자의 저작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 술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의치를 제작할 때 환자는 의치의 심미를 치아의 가지런한 배열, 색상과 의치의 형태에 대해 언급하며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내원한 환자 중 오래된 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수의 의치에서 인공치의 마모, 의치와 인공치 계면의 변색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술자는 안모와의 조화로움으로 해당 의치를 평가하였기에 환자와는 일치하지 않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술자는 의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 또는 마모가 발생하는 것이 점차 연령이 높아지는 환자의 상태와 어울린다 여겨 의치의 심미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의치의 심미에 대한 주안점을 다르게 보고 평가하여 높은 수치의 일치도를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의치상의 균열이나 파절, 인공치의 파절과 같은 의치의 상태를 환자가 평가한 인공치, 의치상의 심미와 비교한 결과 또한 중등도의 일치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치상에 발생한 균열이나 전치부의 인공치 파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술자와 일치하지 않는 평가를 하였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는 심미적 측면이 의치사용 만족도와 관련성이 낮으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낮아진다는 문헌과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9,23] 더불어 대부분의 환자는 고령으로 의치에 대한 평가를 심미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더 중점을 두었기에 술자 평가와의 일치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는 애매모호한 답을 원하는 경우 '보통' 이라는 답을 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평가하였고 술자는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4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문헌을 토대로 결정한 결과였다.[10,24,25] 그 결과, 둘 간의 통계

학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만족' 과 '보통' 을 포함한 '만족하지 않음' 이라는 항목으로 나눠 Cohen's Kappa값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환자와 술자 간의 명확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비록 첫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하여 Kappa값을 0.6 이상 얻어 평가 간의 높은 일치도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참여 환자의 수가 적어 나타난 결과가 전체 총의치 환자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것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에 추 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총의치는 무치악 환자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구강회복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정되고 사용되었다. 본원의 정기검진에 맞춰 내원한 환자로 하여금 기능적, 심미적 측면과 관련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답변을 얻어 술자의 평가와 비교하였다. 의치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술자의 객관적인 평가의 일치도는 통계학적으로 상악에서 높고 하악에서 낮았다.

ORCID

Jin-Soo Byun *http://orcid.org/0000-0001-6296-5260*
Yoon-Hyuk Huh *http://orcid.org/0000-0003-4072-5199*
Lee-Ra Cho *http://orcid.org/0000-0003-3989-2870*
Chan-Jin Park *http://orcid.org/0000-0003-4734-214X*

References

1. Yoshizumi DT. An evaluation of factors pertinent to the success of complete denture service. J Prosthet Dent 1964;14:866-78.
2. van Waas MA. The influence of psychologic factors on patient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1990;63:545-8.
3. Berg E. The influence of some anamnestic, demographic, and clinical variables on patient acceptance of new complete dentures. Acta Odontol Scand 1984;42:119-27.
4. Berg E, Johnsen TB, Ingebretsen R. Social variables and patient acceptance of complete dentures. A study of patients attending a dental school. Acta Odontol Scand 1985;43:199-203.
5. Davis EL, Albino JE, Tedesco LA, Portenoy BS, Ortman LF.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of denture patients in a university clinic. J Prosthet Dent 1986;55:59-63.
6. Carlsson GE, Otterland A, Wennström A, Odont D. Patient factors in appreciation of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1967;17:322-8.
7. Bergman B, Carlsson GE. Review of 54 complete denture wearers. Patients' opinions 1 year after treatment. Acta Odontol Scand 1972;30:399-414.
8. Langer A, Michman J, Seifert I.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in geriatric patients. J Prosthet Dent 1961;11:1019-31.
9. Heyink J, Heezen J, Schaub R. Dentist and patient appraisal of complete dentures in a Dutch elderly population.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86;14:323-6.
10. Pietrokovski J, Harfin J, Mostavoy R, Levy F. Oral findings in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in selected countries: quality of and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1995;73:132-5.
11. Seifert I, Langer A, Michmann J. Evaluation of psychologic factors in geriatric denture patients. J Prosthet Dent 1962;3:516-23.
12. Smith M. Measurement of personality traits and their relation to patient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1976;35:492-503.
13. Bergman B, Carlsson GE. Clinical long-term study of complete denture wearers. J Prosthet Dent 1985;53:56-61.
14. de Baat C, van Aken AA, Mulder J, Kalk W. "Prosthetic condition" and patients' judgment of complete dentures. J Prosthet Dent 1997;78:472-8.
15. Rayson JH, Rahn AO, Ellinger CW, Wesley RC, Frazier QZ, Lutes MR, Henderson D, Haley JV. The value of subjective evaluation in clinical research. J Prosthet Dent 1971;26:111-8.
16. van Waas MA. Determinants of dissatisfaction with dentur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 Prosthet Dent 1990;64:569-72.
17. Woelfel JB, Paffenbarger GC, Sweeney WT. Clinical evaluation of complete dentures made of 11 different types of denture base materials. J Am Dent Assoc 1965;70:1170-88.
18. Wolff A, Gadre A, Begleiter A, Moskona D, Cardash H. Correlation between patient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and denture quality, oral condition, and flow rate of submandibular/sublingual salivary glands. Int J Prosthodont 2003;16:45-8.
19. Turker SB, Sener ID, Ozkan YK. Satisfaction of the complete denture wearers related to various factors. Arch Gerontol Geriatr 2009;49:e126-9.
20. Müller F, Wahl G, Fuhr K. Age-related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s, desire for improvement and attitudes to implant treatment. Gerodontology 1994;11:7-12.
21. Carlsson GE. Bite force and chewing efficiency. Front Oral Physiol 1974;1:265-92.
22. Haraldson T, Karlsson U, Carlsson GE. Bite force and oral function in complete denture wearers. J Oral Rehabil 1979;6:41-8.
23. Smith PW, McCord JF. What do patients expect from complete dentures? J Dent 2004;32:3-7.
24. Vervoorn JM, Duinkerke AS, Luteijn F, van de Poel AC. Assessment of denture satisfaction.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88;16:364-7.
25. Celebić A, Knezović-Zlatarić D, Papić M, Carek V, Baucić I, Stipetić J. Factors related to patient satisfaction with complete denture therapy.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2003;58:M948-53.

총의치 사용에 대한 환자와 술자간 평가 비교

변진수[1] · 허윤혁[2] · 조리라[2] · 박찬진[2]*

[1]원광대학교 산본치과병원 치과보철과,
[2]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및 구강과학연구소

목적: 총의치를 사용하고 있는 무치악 환자에서 의치 사용에 대한 환자의 평가와 술자간의 평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의치를 사용한지 최소 1년 이상 경과된 총의치 장착자 중 43명의 환자가 정기검진에 응하였다. 환자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헌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술자의 객관적인 평가간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술자의 평가 사항으로는 유지, 안정, 교합과 같은 기능적 항목과 의치의 상태를 포함한다. Friedman test와 Cohen's Kappa값을 이용하여 통계학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의치 장착자의 평가와 술자의 평가 간에는 약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악 의치보다는 하악의치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심미와 저작은 중등도의 차이가 있었다.
결론: 의치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술자의 객관적인 평가는 일치하지 않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16;54:364-9)*

주요단어: 총의치; 환자평가; 술자평가; Cohen's Kappa값

**교신저자: 박찬진*
25457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033 640 3153: e-mail, doctorcj@gwnu.ac.kr
원고접수일: 2016년 3월 16일 / 원고최종수정일: 2016년 4월 19일 / 원고채택일: 2016년 6월 7일

ⓒ 2016 대한치과보철학회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 3.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